

18C-20C 중국어 성경
번역 문체에 대한 고찰

소은희 숙명여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중국 당나라(618-908)때 景教¹⁾가 중국에 들어 오므로 시작된 중국어 성경의 번역은 16-18C 예수회 선교사들의 중국어 성경번역을 거쳐, 19C-20C초 개신교 선교사들과 그들을 도왔던 많은 중국인 助手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후 20C 중, 후반에도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독자들에게 더욱 평이하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까지 중국어 성경번역 결과물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거친 가톨릭 교회들의 성경 번역과 香港 聖經公會와 臺灣 聖經公會의 現代中文聖經 번역들의 성과들도 빼놓을 수 없다.

초기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된 중국어 성경은 많은 중국인 助手들에 의해 수정·윤색되었으며,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중국인 학자들에 의해 직접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중국어 성경 역본들은 통, 공시적인 관점에서 17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300년 이상의 中譯의 역사로부터, 중국어의 역사와 그 발전 양상을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漢語史(중국어사) 연구에 그 가치가 보석과도 같은 존재이다. 다음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중국인의 글말인 文言文과 입말 口語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중국인의 글말 文言文과 입말 口語

언어학적 관점에서 세계 다른 민족들의 공통어처럼 표준 중국어도 한 민족의 내부에서 장기간 왕래 되었던 어떤 방언의 기초 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표준 중국어는 구어(口語)와 서면어(書面語)를 모두 포함한다. 구어(口語)란 입말체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구두 형식의 언어이고, 서면어(書面語)는 글말체로 문자로 기록해내는 서면 형식의 언어이다.

중국은 매우 일찍이 공통의 글말(서면어)이 있었다. 漢代 楊雄이 지은 『방언(方言)』에서 자주 거론되는 “통어(通語)”라는 말은 바로 전국적으로 통행 되었던 공통의 언어를 의미한다. 중국 고대의 서면어는 처음에 당시의 구어(입말)에 기초하여 형성되었지만, 서면어(글말)로 고정되어 버린 이후에는 語體가 입말의 語體를 따라 변화하지 않았고, 점차 입말의 語體와는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전문적인 학습을 거치지 않고는

1) 781년에 세워진 ‘大秦景教流行中國碑’의 내용에 따르면, 635년 시리아교회 알로펜(阿羅本) 주교가 장안(長安)에 들어가 경교를 전파하고 왕립도서관을 지어 聖經을 번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듣거나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글말 형식인 서면어 즉 文言文형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국인들은 관념상 이 ‘文言文’은 통상 ‘우아하고 고아하다(登大雅之堂)’고 여겼다. 중국의 사대부들이 官界로의 진입 통로가 되었던 科擧制度가 중국 隋나라 587년에 시작되어 清末 1905년 9월2일 정식으로 폐지되기까지, 1300여년간 중국인의 과거시험 합격자의 답안지는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을 누가 ‘文言文’으로 제일 고상하고 우아하게 표현해 내느냐에 달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문언문과 구어가 완전히 나뉘어져서 민간에서는 구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새로운 형식의 서면어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백화문(白話文)이다. 이는 오늘날 표준 중국어의 서면 형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문헌자료에 근거하면, 이 白話文의 출현은 가장 빠르게는 9세기 당말(唐末)에서 12·13세기 송(宋)·원(元)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시기에도 백화문은 이미 상당히 성숙한 서면 언어로 발전되어 있었다.

명(明)·청(淸)시대 이래로 중국은 백화문으로 쓴 문학작품이 다량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는 『수호전(水滸傳)』 · 『서유기(西遊記)』 · 『유림외사(儒林外史)』 · 『홍루몽(紅樓夢)』 등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문학 서적이 포함된다. 이러한 작품의 언어는 많은 적든 지방 방언의 색채를 띠 수는 있지만 모두 북방지역방언(북방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文言과 口語의 역사를 간단하게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표1> 文語와 口語의 역사

周代	구분	
	文語	口語
漢 / 魏晉南北朝 / 隋 / 唐 / 宋 / 元 / 明 / 淸	文語(白話)	
五四白話運動 / 現代	白話	文言
	書面語	
		口語

3. 중국어 성경의 문체

중국어 성경 번역의 문체는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문언체(文言體)와 천문리체(淺文理

體), 관화체(官話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각의 성격과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

3.1 ‘深文理’ 譯本 (High Wenli Version)

중국어 성경의 ‘深文理’ 譯本이란 ‘文言文’ 형식으로 쓰여진 ‘文言譯本’을 말한다. ‘文理’체란 中國의 四書三經 등과 같은 중국 고전의 문체로 ‘經書體’라고도 하며, 쉬운 문리와 구별하여 ‘深文理體’라고도 한다. 『白日昇譯本 (장 바세 슬로안 사본)』, 『馬禮遜、米憐譯本 (모리 슨.밀른 역본)』, 『馬殊曼、拉撒譯本(마슈만.라사역본)』, 『郭實臘譯本(귀츨라프역본)』, 『委辦本』 (『代表本』이라고도 함), 『裨治文、克陛存(브리즈만.컬버슨역본)』 등이 文言文, 즉 ‘深文理’에 해당하는 판본들이다.

3.2 ‘淺文理’ 譯本 (Easy Wenli Version)

‘淺文理’ 譯本이란 아주 고상한 수준의 고전 문체 즉 문언 문체와 통속적인 입말 문체사이의 문체를 말한다. 深文理보다는 통속적인 색채를 띠는 문체로 문언문과 구어 사이에 속하는 ‘半文半白’ 語體에 속한다.

당시 중국인들은 서면어를 ‘文理 (Wen-li)’ 또는 ‘文言’이라고 칭하였다. 문언체로 쓰여진 『委辦本』 (『代表本』)은 학자 층과 지식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고, 교육 받지 못한 백성들은 閱讀할 수가 없었다. 이에 선교사들은 쉬운 글말체로 너무 어렵지도 너무 속되지 않은 쉬운 글말체 형식으로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다.²⁾ 선교사들은 기존의 文言과 현대 구어에 가까운 문체를 구별하기 위해 ‘深文理(High Wen-li)’와 ‘淺文理 (Easy Wen-li)’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서방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어휘로 중국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다.’

淺文理 (Easy Wen-li) 聖經 譯本에는 楊格非(Griffth John, 1831-1912)의 『淺文理新約全書』 (1886)와 施約瑟(Samuel Isaac Joseph Schereschewsky, 1831-1906)의 『施約瑟淺文理譯本』 (1902) 등이 있다.

『North China Herald News』³⁾의 논평에 의하면, 楊格非(Griffth John)의 『淺文理新約全書』 (1886)는 학자로부터 농민까지 각 계층의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논평문은 아래와 같다.

“We are led to believe that the permanent Standard Chinese Version must steer a middle course between the extremes of the high classical and low colloquial

2) 蔡錦圖, 『聖經在中國』, 漢語基督教文化研究所, 2018, 241쪽

3) 『North China Herald News』 (1887. 5. 13일자, 8쪽)

styles. It must carry with it an air of authority and intelligibility; and must call forth the respect, and be suited to the capacity, of the average scholar. …… It must not contain the colloquial of any district, but must be in the easy classical, or current style, known all over the Empire …… But time will not permit us to say all that we think the standard translation ought to be; suffice it to say that we consider Mr. John's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in its amended form, to be a most praiseworthy effort in the right direction ……”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읽혀질 표준 중국어 버전은 아주 고상한 수준의 고전과 통속적인 구어의 중간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권위가 느껴지고 경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체로 학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또한 구어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도 충분히 쉬우면서 전통적이고, 현재의 언어 방식을 사용하여 중국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우리는 현재 아직 올바른 번역의 기준을 정의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그리피스 존의 신약성서 번역은 번역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 ”)4)

위의 ‘North China Herald News’ 는 지식인의 공유물이었던 문언문보다 지식인이 아닌 사람까지도 쉽게 閱讀할 수 있도록 쉬운 문체로 쓰여진 ‘淺文理’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논평하고 있다. 즉 “아주 고상한 수준의 고전과 통속적인 구어의 중간 수준”의 문체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楊格非(Griffith John) 그리피스 존의 요한복음 3:3절의 말씀을 심문리 판본과 천문리 판본으로 비교해 보겠다.

- (1) GJ(1886)3:3 耶穌曰，我誠告爾，人若未得重生，不能見上帝之國，(심문리 판본)
 - (2) GJ(1892)3:3 耶穌說，我實在告訴你，人若沒有重生，不能見上帝的國，(천문리 판본)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문 (1)은 문언문 판본으로 “말하다”라는 어휘를 문언의 어체인 “曰”로 표기하였고 “너”는 “爾”로 “~의”라는 의미를 “之”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예문 (2)는 예문 (1)의 고문체로 쓰여진 문장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쉬운 문리체로 대체시킨 것을 고찰할 수 있다.

4) 김찬미, 『18-20세기 중국어 성경 8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고찰-마가복음, 로마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6-17쪽, 재인용

예문 (2)에서는 그리피스 존이 “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曰”을 입말체인 “說”로 바꾸었고 “진실로”라는 부사를 고문체 “實”보다 입말체에 가까운 “實在”로, “너”라는 의미의 고문체 “爾”을 현대 중국어 입말체 “你”로, “알리다”라는 의미의 “告”를 “쌍음절화된 “告訴”로 바꾸었으며, “~ 중생을 얻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未得重生”을 “沒有重生”라는 입말체로 어투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언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인 “上帝之國”을 입말체 “上帝的國”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3.3 ‘官話’ 譯本(Mandarin Version)

14세기 후대에 이르자 ‘관화(官話)’라고 불리던 구어가 북방어의 기반 위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관화(官話)’는 明清 시대에 사용된 용어로, 중화민국에서는 ‘國語’로 1956년에는 “보통화”로 개명되었다.

‘관화(官話)’는 글자의 의미대로 관리 계층이 전용하던 관청의 雅言(고상한 언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전 민족이 공통으로 사용하였던 언어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⁵⁾

영어로는 만다린 랭귀지(The Mandarin Language) 또는 만다린이라 한다. 이 말은 포르투갈어 ‘Mandarin→Mandar(명령하다)’의 변형된 말로 본래 ‘공무원의 말’이라는 뜻이었지만, 후에 공식적인 용어, 즉 공용어란 의미가 되었다고 한다.

1860년 북경조약이 체결된 후 전면적인 중국의 개방을 계기로 선교사들은 중국 전역에서 통용이 가능한 언어 형식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시 ‘官話’는 앞서 옹정제(雍正帝, 1723-1735)가 민(閩)·광(廣) 두 성에 정음서원(正音書院)을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만큼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즉 官話는 당시 사용이 가장 편리하고, 계급 간 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따라서 1860년대 이후, 官話 聖經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官話 번역 작업에 대한 착수가 이루어졌다.

북경은 1153년에 금(金)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부터 원(元)·명(明)·청(淸) 3대가 모두 이곳에 도읍을 정하여 800여년간 줄곧 전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북경어는 官話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언이 되었고, 표준 중국어(普通話)의 기초가 북경음을 표준음으로 삼은 까닭이기도 하다.

20세기 초, 특히 1919년 5·4운동 시기에 민족 민주 혁명운동이 고양되어, 사회적 수요에 따라 白話文이 마침내 文言文을 대체하여 정식의 書面語가 되었다. 이런 백화문 운동은 문언문의 지위를 철저히 흔든 동시에 “國語運動”을 불러 일으켜 “國語”라는 명칭이 “官話”를 대체하게 되었다.

5) 김애영, 김현철, 소은희, 심소희 역, 『現代漢語』, 차이나하우스, 2007, 23쪽

그러나 당시 官話는 또한 지식인들 계층에서 “너무 속되서 사람들의 중시를 받지 못하며 고상한 지위에 오를 수 없는(不登大雅之堂)”언어로 치부되어⁶⁾, 중국어 성경번역자들에게는 문인과 지식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만한 새로운 문체로의 성경번역이 필요했다고 한다. 이것이 『施約瑟淺文理譯本』(1902)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⁷⁾

대표적인 ‘官話譯本’에는 『南京官話譯本』, 『北京官話譯本』, 『華中官話譯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山東話, 天津話, 上海話, 寧波話, 蘇州話, 福州話, 客家話, 廣州話 등의 각종 방언 역본이 있다.

그 중 『南京官話譯本』은 『代表本(1854)』의 문언체 신약 성경을 南京官話(Nanking Mandarin)로 重譯한 것으로, 미드허스트(麥都思, W.H Medhurst, 1796-1857)와 스트로나크(施敦力, J.Stronach, 1800-?)의 감독하에 한 중국인에 의해 번역되었다. 1854년 상해에서 『馬太福音』이 처음 출판되었고, 이후 1857년 신약이 여러차례 간행되었다. 다만 이 역본은 중국 내지 교회에만 제공, 사용되었다.⁸⁾

3.4 각종 판본별 문체 비교

다음은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삽나이까”의 말씀을 심문리역본, 천문리 역본과 남경관화, 북경관화, 화중관화의 판본을 비교해 보겠다.

(1)深文理譯本

- ① MM:(1813)3:4 尼可氏母謂之曰、人既老何得再生、其可再入厥母之腹以再得生乎。
- ② ML(1822)3:4 尼可氏母問之曰、人既老何得再生、豈可再入厥母之腹以再得生乎、
- ③ DB(1854)3:4 尼哥底母曰、人既老、何得更生、豈重入母腹而生乎、

(2)淺文理譯本

- ④ GJ(1886)3:4 尼哥底母曰、人既老、何得重生、豈能再入母腹而生乎?

6) 『利瑪竇中國割記·第五章』: “除了不同省份的各種方言, 也就是鄉音之外, 還有一種整個帝國通用的口語, 被稱爲官話(Quonhoa), 是民用和法庭用的官方語言。這種國語的產生可能是由於這一事實, 即所有的行政長官都不是他們所管轄的那個省份的人(我們下面就要解釋), 爲了使他們不必需學會那個省份的方言, 就使用了這種通用的語言來處理政府的事務。官話現在在受過教育的階級當中很流行, 並且在外省人和他們所要訪問的那個省份的居民之間使用。懂得這種通用的語言, 我們耶穌會的會友就的確沒有必要再去學他們工作所在的那個省份的方言了。各省的方言在上流社會是不說的, 雖然有教養的人在他們的本地可能說方言以示親熱, 或者在外省也因鄉土觀念而說鄉音。這種官方的國語用得普遍, 就連婦孺也都聽得懂。”
이와 같이 마테오리치는 《利瑪竇中國札記》에서 관화는 민용과 법정에서 사용되는 관방의 언어로, 현재 교육을 받은 계급층에서 매우 유행하며 외지인이 방문하는 곳의 거민들끼리 사용하며, 이 관방의 국어는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어린이와 부녀자들도 모두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7) 張利偉, 『施約瑟及其《聖經》漢譯的原則和方法』, 南京大學, 1994, 42쪽

8) 蔡錦圖, 『聖經在中國』, 漢語基督教文化研究所, 2018, 423-426쪽 참고

⑤ SS(1898):3:4 尼哥底母曰, 人既老, 何能重生, 豈能再入母腹而生乎?

(3)官話譯本

1) 『南京官話譯本』

⑥ NJ(1857):3:4 尼哥底母道人既老了, 怎得重生, 豈能再進母親的肚子裡生出來呢。

2) 『北京官話譯本』

⑦ BJ(1872):3:4 尼哥底母說、人已經老了、如何能重生、豈能再進母親腹中生出來呢。

3) 『華中官話譯本』

⑧ GJ(1892):3:4 尼哥底母說、人既老了、怎得重生、豈能再進母親腹中生出來呢。

4) 『和合本譯本』

⑨ HH(1919):3:4 尼哥底母說: 「人已經老了, 如何能重生呢? 豈能再進母腹生出來麼?」

위의 중국어 성경 요한복음 3장 4절의 예문들에 대한 종합, 비교, 분석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언어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문미에 오는 의문어기사가 고문체인 “乎” 쓰인 반면, 관화역본에서는 “麼”로 쓰인 예문 1개 외에는 현대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문어기사가 “呢”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 ①, ②, ③, ④, ⑤와 같다.

2.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어찌”라는 의문사가 고문체인 “何” 혹은 “曷” 쓰였지만, 관화역본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怎”、“如何”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 ⑥, ⑦, ⑧과 같다.

3.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태어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고문체인 “生”으로 쓰였지만, 관화역본에서는 동사 “生”에 그 “生”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보어 “出來”를 부가하여 “엄마 뱃속으로 부터 세상으로 나왔음”을 표현해 내고자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위의 예문 ⑥, ⑦, ⑧, ⑨와 같다.

3.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이미”라는 부사가 고문체인 “既”로 사용되었으나 북경 관화역본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이미”라는 의미의 어휘인 “已經”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 ⑦과 같다.

4. 어휘사용 측면에서는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어미 뱃속에 들어가다”라는 말을 문언체로 “入母腹”라고 하였으나, 관화역본에서는 “進母腹中”으로 표현하였다. “들어가다”는 의미의 어휘인 고문체 “入”자가 현대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進”로 대체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南京官話譯本』은 “進母親的肚子裡”

(어머니의 뱃 속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문형을 사용하여, 그 언어 표현 방식이 현대 중국어 입말에 더욱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4. 나오는 말

본 논문은 16C-20C初 대표적인 중국어 성경 白日昇(J.Basset) 巴色譯本 (JB,1703), 賀清泰 (Louis Antoine de Poirot) 《古新聖經》(LP,1803), 馬禮遜、米憐譯本 (MM,1813) 馬殊曼、拉撒譯本(ML,1822), 郭實臘譯本 (GL, 1839) 委辦本譯本(DB,1854), 麥都思南京官話譯本(NJ,1857), 裨治文、克陞存譯本BC(1863), 北京官話譯本(BJ, 1872), 楊格非譯本 (GJ, 1886), 楊格非譯本(GJ, 1892), 施約瑟譯本(SS, 1902), 和合本官話譯本 (HH, 1919) 들과의 중국어 원문 비교분석을 통하여, 서양 선교사들과 그 중국인 助手들의 성경 번역의 역사와 그 譯經 과정에서 보이는 중국어의 語體변화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The christian Dawn in Korea, The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Korea, 1881>과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表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1) ”나의 성경반에서 먼저 한국인 번역자들은 나와 함께 한문 성서를 읽은 후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그것을 다시 헬라어 원문과 대조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원문에 가깝게 하였다.”(<The christian Dawn in Korea, The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Korea, 1881>)

2) “ ST.Luke, 1882. First edition in Korean Translated from the Chinese Version by John Ross of the U.P. Church of Scotland, with the help of Koreans”(<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表紙)

편폭의 제한으로 이번 연구의 발표는 여기까지 실었으나, 다음은 이러한 연구 작업의 기초 위에, 언어적 특징인 통사론과 형태론적 각도에서 중국어 성경 역본이 존 로스 최초 한글 성경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과 <예수성교전서>(1887)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과제를 남기며 이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白日昇(J.Basset) 巴色譯本 (JB,1703)
賀清泰 (Louis Antoine de Poirot) 《古新聖經》 (LP,1803)
馬禮遜、米憐譯本 (MM,1813)
馬殊曼、拉撒譯本(ML,1822)
郭實臘譯本 (GL, 1839)
委辦本譯本(DB,1854)
麥都思南京官話譯本(NJ,1857)
裨治文、克陞存譯本BC(1863)
北京官話譯本(BJ, 1872)
楊格非譯本(GJ, 1886),
楊格非譯本(GJ, 1892),
施約瑟譯本(SS, 1902)
和合本官話譯本 (HH, 1919)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
<예수성교전서>(1887)
김애영, 김현철, 소은희, 심소희 역, 『現代漢語』, 차이나하우스, 2007,
김찬미, 『18-20세기 중국어 성경 8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고찰-마가복음, 로마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석사논문, 2018년
張中行, 『文言和白話』, 黑龍江人民出版社, 1998년
『利瑪竇行旅中國記』, 上海博物館編, 北京大學出版社, 2010년
蔡錦圖, 『聖經在中國』, 漢語基督教文化研究所, 道風書社 2018년
姚達兌, 『聖經與白話』, 載梁工先生所編 《聖經文學研究》 第七輯,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3년
劉立壹, 『論麥都思的典籍翻譯理念』, 重慶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 第27卷, 第8期, 2013년
蔣紹愚, 『近代漢語研究的新進展』, 北京大學中文系, 清華大學人文學院, 陝西師範大學學報, 第47卷 第三期, 2018년
張利偉, 『施約瑟及其《聖經》漢譯的原則和方法』, 南京大學, 1994년